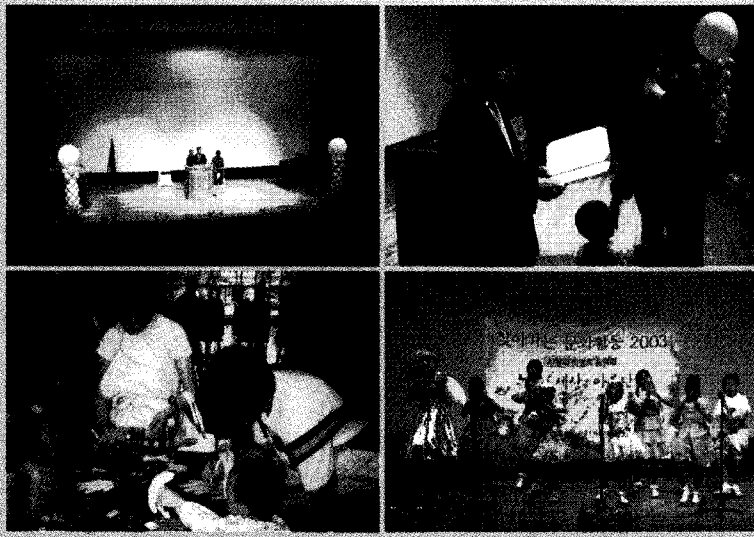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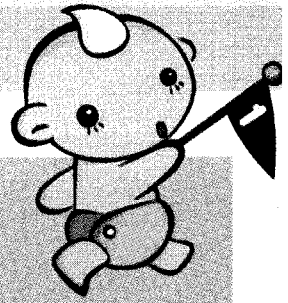


# 엄마젓 최고!



함께 해요~  
엄마젓 최고!

“우리는 현명한 어머니로서 엄마젓으로 아기를 튼튼하게 키우고 아기의 젓먹을 권리를 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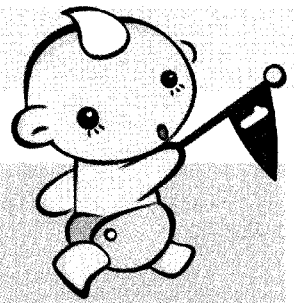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엄마젓 먹이기를 위한 우리의 다짐 중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이시백)는 세계모유수유주간(8월 1일~7일)을 기념해 8월 1일 서울여성플라자(대방동 소재)에서 임신 부부들과 엄마젓 먹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전문가, 일반인들을 초청해 “함께해요~ 엄마젓 최고!” 행사를 개최하였다.

엄마젓 먹이기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2003년도 엄마젓 최고! 대국민 홍보작품 시상식과 작품 전시회를 비롯해 엄마젓 교육비디오 상영, 이근 이화여대 동대문 병원 소아과 교수의 Q&A, 아빠와 함께 풀어보는 엄마젓! 퀴즈, 노래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엄마젓 최고! 홍보사이트([www.mom-baby.org](http://www.mom-baby.org))에서 상담과 자문을 맡을 소아과 의사 위촉식도 함께 가졌다. 협회는 이를 통해 다른 사이트와는 차별화된 전문적인 상담과 엄마젓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엄마젓의 중요성과 실질적인 방법 등을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 참여자 모두에게는 엄마젓 먹이기를 재미있게 꾸민 만화집과 기념품을 증정하고 행운권 추첨을 통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서울 모자보건센터에서 여성 건강을 위해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또한, 건강한 다음세대를 위한 엄마젓 먹이기 약속의 의미로 손도장 찍기와 글 남기기 등의 행사로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엄마젓 먹이기에 국회의원도 나섰다!**

## 아기의 첫 권리, **엄마젓!**

-제12회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 세미나

**가**협과 국회 통일시대평등사회정책연구회(회장 김정천 광주 동구 국회의원)는 엄마젓 먹이기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세계모유수유주간 기념 정책 세미나를 8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 김정천 의원(새천년민주당 총재특보)과 이시백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장, 보건복지부, 노동부, 시민단체 등 모성보호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하였다.

이화여대 소아과 이근 교수는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한 '모유대체식품판매에 관한 국제 규약' 지키고 그에 필요한 시행령을 입법화할 것을 강조, 분유/이유식을 포함한 모든 '모유대체식품의 대중매체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 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암 교수도 현행 낮은 의료수가 책정의 문제점과 앞으로 도입될 '포괄수가제'는 모유수유를 방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모유수유 전문가 양성과 모자동실의 입법화 추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제 발표 후 자유토론에서는 모유수유 전문가 양성과 산전 교육, 직장내 착유실 설치가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본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은 엄마젓 먹이기 증진을 위해 법제화하도록 건의될 예정이다. 또한, 8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엄마젓 최고! 공모전 작품 전시회도 개최하였다.

직장여성의 수유시간 보장뿐 아니라 수유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개정에 손희정 의원, 이승철 의원 등이 발의를 통해 엄마젓 먹이기를 위한 사회여건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또한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도 분유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이유식 광고를 금지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2002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